

‘연체율’ 과제 저축은행… “NPL 가격 낮춰야”

(부실채권)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 5.33%
대손충당금 확대로 순손실 962억

부실채권 매매 민간 확대에도
매매가격 높아 거래는 부진
건전성 방점 매매가 조정 가능성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매매를 민간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하다. 저축은행의 하반기 과제가 연체율 낮추기인 만큼 눈높이를 낮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연체율은 5.33%다. 지난해 상반기(2.69%)와 비교하면 2.74%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평균 연체율은 4.04%에서 5.12%로 1.08%p 오른 것에 그쳤지만 개인사업자는 1.78%에서 6.35%로 4.47%p나 치솟았다. 저축은행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기업이 세 배 넘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상반기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900



저축은행의 주요 하반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연체율 낮추기다.

/뉴시스

억원 가까이 벌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1조원에 육박한다. 이자 비용 상승과 함께 높아진 연체율 탓에 대손충당금 규모를 확대한 영향이다. 하반기 저축은행이 실적 반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민간을 통해 채권 매각을 원한다면 매매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수요를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이 저축은행의 NPL을 매입하더라도 캠프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큰 격차를 벌리

는 어려울 것이라 설명이다. 올해 저축은행권에서는 캠프가 NPL을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자 잡음이 등장한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PL의 가격은 상환 가능성에 따라 형성된다. 지금보다 가격을 낮춰도 수요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저축은행권이 고집을 떨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연체차주 및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이 나이지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저축은행이 NPL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업계에서

는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저축은행의 NPL을 매입할 유인이 없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저축은행권은 NPL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자산 규모 상위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5.12%로 지난해 상반기(2.54%) 대비 2.58%p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대손충당금 확대로 이어져 순이익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NPL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NPL 매각 창구를 캠프에서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 5곳(우리금융F&I·하나F&I·대신F&I·키움F&I·유암코)을 선정해 NPL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NPL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 셈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NPL을 무리해서 판매했다가는 결국 ‘폭탄돌리기’란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매매에 나설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우리은행 ‘상생금융’ 전세사기 피해자에 연체이자 면제 시행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상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상호금융, 기업대출 중심 건전성 악화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186억
농협 소폭 늘고 신협·수협 적자
기업대출 연체율 1.98%p 증가

올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이 실적 악화와 함께 자산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신협·산림·수협 등 상호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7억원 감소했다.

순이익은 신용사업부문(금융)이 3조7657억원으로 이자이익 호조에 4879억원 증가했다. 반면 경제사업부문은 순손실이 1조7471억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농협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99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소폭 늘었다. 반

〈대출 차주별 연체율 현황〉

(단위: %, %p)

구분	2021년말	2022년말(A)	2023년 6월말(B)	증감 (B-A)
가계	0.82	0.91	1.43	(0.52)
기업	1.76	2.23	4.21	(1.98)
개인사업자	1.33	1.39	2.52	(1.13)
법인	2.32	3.38	6.52	3.14
총 대출	1.17	1.52	2.80	(1.28)

면 신협과 수협은 적자를 기록했다. 순손실은 신협이 669억원, 수협이 226억원이다.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717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2% 늘었다. 총대출은 502조1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중앙회 등 예치금이 154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조합당 평균 자산은 4.3% 증가한 3243억원이다. 총수신은 612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1% 늘었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2.80%로 작년 말 대비 1.28%포인트(p)나 상승했다.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4.21%로 1.98%p나 뛰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43%로 0.52%p 상승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91%로 작년 말 대비 1.07%p 높아졌다.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이 작년 말 2.66%에서 올 상반기 4.45%로 1.79%p나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7%로 작년 말 대비 13.3%p 하락했으나 요적립률인 100%는 웃돌았다.

순자본비율은 7.97%로 작년 말 대비 0.29%p 낮아졌지만 최소 규제비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수신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합의 여유자금인 예치금도 크게 증가하는 등 유동성 관리 노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악화 등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이 건전성 등을 제고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 대출 늘었지만 분기 순이익 증가로 BIS 자본비율 개선

국내은행들의 2분기 자본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8%, 14.27%, 15.62% 및 6.53%다. 1분기 말과 비교하면 각각 0.08%포인트(p), 0.01%p, 0.01%p 및 0.04%p 상승했다.

금감원은 “대출이 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됐지만 분기순이익의 시현과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 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했다.

총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한 씨티·산업·수출입·KB·DGB 등 5개 은행은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상승했다. 카카오·토스·수협·SC·JB·BNK·우리·기업·하나·신한·농협·케이 등 12곳은 총자본이 소폭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커지면서 총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자본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신한銀 中법인, 위챗에 모바일 브랜치 오픈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연동
13억 위챗 고객 대상 접점 확대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가 중국 최대 규모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 Wechat)과 연동된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모바일 브랜치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위챗 메신저와 연동해 금융, 쇼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국내 최대 규모 메신저인 위챗의 이용 고객수는 약 13억명이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이번 위챗 내 모바일 브랜치 오픈을 통해 위챗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챗 사용 고객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않고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의 정기예금·적금 상품가입, 거래내역 조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 고객들에게 신한은행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기반고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케이뱅크, 인뱅 최초 車 대출상품 출시

2금융권 자동차 대출 대한 상품
별도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자동차대출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2금융권에서 받은 자동차대출을 대환하는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대출은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별도 서류제출 없이 케이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도는 신차 기준 8000만원, 중고차 기준 5000만원이다. 기존 카드사, 캐피탈사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면, 이를 포함한 대출금액 전액을 대환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고객의 월 납입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년(신차할부 대출 기준)까지 보장한다.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75%로 2금융권 최저금리와 비교해 1%포인트(p) 이상 낮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의 비대면 혁신을 자동차금융으로 확장했다”며 “번거로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타면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기간으로 원리금 부담도 덜고 신용점수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